

제8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第八届 中韩政策学术会议

미중 전략경쟁시기 동북아 안보와 협력
中美战略竞争时期东北亚安全与合作



2021. 11. 16^{Tue} 14:00~18:00

장소 ZOOM Webinar

주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한중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후원 한국외교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구재단

* 학술회의를 목적으로 한 비공개 책자이므로, 원문 인용시 반드시 저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함.

*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T. 031-219-3861 H. <http://ucpi.ajou.ac.kr> E. minhui1212@ajou.ac.kr

초대의 글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前중국정책연구소)는 2014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가을 중국측과 한-중 정책학술회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제8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중관계는 사드사태의 풍파를 거치면서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회의는 단절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은 한국 못지않게 이 회의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중시해왔습니다. 중국 측은 군부의 현역 장군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분야별 최고수준의 전문가, 전직 관료 등의 함께 모여 외교·안보·대북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을 높고 상호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정책 결정과 학술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고, 한중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어, 중국측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졌지만, 화상회의로 소통의 끈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북경대학 최대의 권위있는 대외 연계창구이자 연구기관인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가 적극 나서서 저희와 11월 16일에 회의를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회의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청빙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김흥규 배상

邀 请 函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原为“中国政策研究所”）从2014年至今每年都与中方一起召开韩中政策学术会议。今年正在筹备举行第八届会议。

近年来，韩中关系因受到萨德事件风波的影响，双方交流几乎近似于断绝。文在寅政府上台以后，相互间的沟通进展得也不顺利。但即便是在这种情况下，本会议依然不间断地召开至今。不仅如此，我方体恤中方军队现役将军、各机关顶级专家等，使其能够顺利参与本会议。中方主要机关和专家们对本会议的价值认识与重视程度，绝不亚于韩方专家。代表韩中两国在各个领域顶级水平的专家、前任官员等相聚一堂，就外交、安全、对朝问题等多个专业领域的议题进行高水准的、极具深度的讨论。可以自豪地说，本会议为两国政策决策与学术领域做出了较大的贡献。

中美战略竞争形势日益严峻，韩中两国之间进行沟通的必要性比以往任何时候都要紧迫。2020年起由于新冠疫情扩散，中方人士访韩具有难度。另外，由于在财政上有一定困难，曾一度在是否继续举办会议的问题上产生不确定因素。

目前，决定由中方承担一部分经费，并将会议继续举办下去。今年将召开视频会议。中方由北京大学最具权威的对外联络窗口、暨研究机构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与我方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积极合作，成为会议的联合主办单位。

双方商定将于11月16日召开会议。诚邀您参与本次机会难能可贵的会议。

2021年 10月 25日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

金兴圭 拜呈

프로그램

주제 미중 전략경쟁시기 동북아 안보와 협력

일시 2021.11.16. 한국PM 2:00-6:00 중국PM 1:00-5:00

주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중국교육부 북경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후원 한국외교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김구기금회

개막식 (14:00-14:30)

개막사 문희상,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축 사 천진환, 김구기금회 부이사장

기조연설 자칭귀, 북경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및 교수, 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장

노재현,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Session 1 (14:30-15:30)

주제: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사회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및 아태연구원 부원장

발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장원링, 산둥대학교 석좌교수 및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토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파오동선,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및 국제정치학과 교수

Session 2 (15:30-16:30)

주제: 한중 양국간의 해양분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회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발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주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토론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왕권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및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Session 3 (16:40-17:40)

주제 :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사회 리춘푸, 남개대학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및 전 외교안보연구소 대리소장

발표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 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장징첸, 산둥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 및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토론 마상윤,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카톨릭대학교 교수

정지용, 상해복단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Wrap-up (17:40-18:00)

왕동, 북경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부주임 및 국제관계학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외교부 외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청와대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전체 토론자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사무처장

会议议程

主题 中美战略竞争时期东北亚安全与合作

日期 2021年 11月 16日

中方 13:00-17:00 韩方 14:00-18:00

主办 中国教育部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

韩国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

赞助 韩国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 韩国金九基金会

韩国外交部, 韩国海洋科学技术院 (KIOST)

开幕式 (13:00-13:30)

开幕词 文喜相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名誉委员长

宁赋魁 前驻韩中国大使

祝 词 千辰焕 金九基金会副理事长

主旨演讲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卢载宪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常任委员长

Session 1 (13:30-14:30)

主题 评估当前中美战略竞争及其对东北亚安全的影响

主持 张小明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北京大学亚太研究院副院长

发表者

韩方: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中方: 张蕴岭 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讨论者

韩方: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高级研究委员, 前青瓦台国家安全室行政官

中方: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Session 2 (14:30-15:30)

主题 如何应对中韩两国之间的海洋问题

主持 洪铉翼 韩国国立外交院长

发表者

韩方：梁熙喆 韩国海洋科技院海洋法与政策研究所所长

中方：朱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讨论者

韩方：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中方：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Session 3 (15:40-16:40)

主题 为了中韩关系的改善，应该做什么？

主持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

田奉根 韩国国立外交院教授，前外交安保研究所执行所长

发表者

韩方：李昌衡 大陆战略研究所所长，韩国国防研究院名誉研究委员

中方：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讨论者

韩方：马相润 前外交部政策规划局长，天主教大学教授

中方：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Wrap-up (16:40-17:00)

王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金兴圭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外交部外部改革委员会委员长，青瓦台国家安保室政策顾问

综合讨论者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事务总长

개 막 사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중한 수교 이후 양국은 어느덧 29년 동안 함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으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국제 및 지역 정세가 격동하고, 각자의 사회제도와 발전노선이 다를 뿐 아니라 양국 관계 발전이 때때로 외부 요인의 간섭과 영향을 받았지만, 양국은 함께 상호이해, 상호존중,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이념과 장기적 안목을 유지하며 변함없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확대하며 상생협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는 분명 양국이 계속해서 전승해나갈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동북아는 불확실성이 큰 지역으로, 자주 여러 사안이 대두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30년간 북미 대화가 굴곡을 겪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북미 관계의 변화와 함께 긴장 국면에 접어들기도, 완화되기도 하였으며 아직 대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관계 개선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 실무적, 효과적인 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는 정치·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 주변 대국의 이익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자, 대국 간 경쟁의 핵심 지대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국 억지 전략을 고수하고 국가 간 편을 나누면서 중국과 일부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가 복잡미묘해지게 되었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비록 대국 간에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은 항상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미일 관계와 중한, 중일 관계가 부딪힘 없이 순탄히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삼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2022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올해와 내년은 중한 문화교류의 해이기도 합니다. 양국 국민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의 기초를 다지며 수교 당시의 초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호 신뢰를 증진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하는 것은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의 눈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가 격동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한 관계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각계 인사들이 양국 협력과 공동 이익에 더욱 주목하고, 이로써 공동의 이익을 한층 더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开幕词

宁赋魁（前驻韩中国大使）

中韩建交以来已携手走过29年。29年两国关系发展的成功经验是：尽管国际和地区形势发生了重大变化、尽管中韩社会制度不同、发展道路不同，尽管中韩关系的发展不时受到外来因素的干扰和影响，但两国能够秉持相互理解、相互尊重、求同存异、共谋大局的理念处理双边关系，始终寻求共同利益、扩大共同利益、坚持合作共赢。这一宝贵经验值得双方继续发扬传承。

东北亚地区是一个充满不确定性的地区，热点频发、紧张频现。近30年朝美对话谈谈停停，半岛局势随着朝美关系的变化时而紧张，时而缓和，至今未走出对抗格局。半岛南北双方之间的交流合作、关系改善，也是跌宕起伏，历经坎坷，至今未能建立起畅通稳定、务实有效的交流合作机制。同时，东北亚在政治安全、经济上深度牵涉周边大国的利益，也是大国博弈的中心地带。近年来美国奉行对中国遏制打压战略，而且拉帮结派，导致中国与东北亚有关国家之间的关系更加微妙复杂，也给半岛问题的解决增加了新的不确定因素。

尽管大国之间存在着结构性矛盾，但未来依然需要必要的协调与合作。中国始终高度重视与周边国家的关系。我们希望韩美、日美关系与中韩、中日关系并行不悖地发展。这符合三国的共同利益。

2022年是中韩建交30周年，今明两年是中韩文化交流年。进一步拉近两国民间友好感情、巩固两国关系行稳致远的基础，坚持建交初心、增强互信，全面深化、拓展两国合作，是摆在两国及两国民众面前的共同课题。在地区和国际局势激变、新冠疫情呈长期化的大背景下，进一步发展中韩关系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重要。希望两国各界人士能够更多地聚焦两国间的合作，聚焦双方的共同利益，把两国共同利益的蛋糕继续做大。

기조 연설

노재현

(한중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재현입니다. 저명한 학자분들을 이 자리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는 서로 잘 협력해 오고 있다는데, 이번에 저희도 함께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님을 포함한 한국의 저명한 학자분들과 자칭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님, 왕동 부주임님을 포함한 중국의 저명하고 한국을 아껴주시는 중국 학자분들을 이 기회에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전지구적 혼란의 시기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방역의 끝이 보이고 있고, 세계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더 빠른 시기에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민심상통'을 기초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이런 세미나에서의 만남 보다는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눠야 더 친근해지는 동양인의 미덕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아시아인의 하나인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과 중국인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동아시아가 함께 손잡고 평화롭게 세계로 나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노래말에는 "손에 손잡고, 담을 넘어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서로 민심상통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저의 선친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재임시기 한국의 '북방외교'를 추진하시며 중국 등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여 오늘 이와 같은 자리도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담을 넘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서 만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이웃 중국분들을 만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이 자리는 양국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회이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선친은 서울 아시아게임과 서울 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스포츠 외교를 통해 국가와 국민들의 거리를 좁히는데 노력해 왔는데, 이런 점에서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도 중국이 세계와 함께하고 많은 국가와 국민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중국의 북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말에 출발이 도착이자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중국어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预祝北京冬奥马到成功”, 북경올림픽이 정말로 성공하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 벽을 허물고 같이 갈 수 있는 외교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며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싸우지 않고 적을 친구로 만들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는 과거 한국의 북방외교와 한중수교 그리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한중수교와 한러수교, 그리고 남북한교류와 평화체제 유지는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평화가 유지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 동북아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 정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틀 속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축으로 각 국가들의 대립만 한다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상하며, 서로에 대한 견제가 적어도 협력의 끈을 유지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국가간 관계가 미래 비전을 갖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찰과 전쟁을 피하며 서로 견제하되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다자외교라 봅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적 안보와 미래비전의 국가협력이라는 과제도 거시적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접국가 간에는 과도한 민족주의보다는 사해동포주의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마찰을 평화와 협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대로 인내하며 겸허하게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지성인들의 역사적 노력이자 결과적 목표였던 동북아 평화와 발전이 국가간 협력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중국의 지성(知性) 엘리트 여러분, 언제 같은 원탁에서 모두 같이 한국과 중국의 음식과 차를 같이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방역이 모두 큰 성과를 거두어 북경동계올림픽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큰 축제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主旨演讲

卢载宪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常任委员长）

大家好，我是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常任委员长卢载宪。很高兴在这里见到各位知名学者。

我听说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中心和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中心合作相互合作，这次大家可以一起参与，我感到十分高兴。

借此机会可以见到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金兴圭先生和许多韩国知名学者，还能见到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贾庆国先生，副主任王栋先生和很多中国知名学者，我感到十分荣幸。

受新冠疫情影响全球进入了混乱时期，现在因疫苗的接种这场混乱似乎也快到了尽头。在全球经济复苏的同时，我希望大家坐在一起喝着茶，以‘民心相通’为基础相互交流的这一天能够早日到来。

与参加这样的研讨会相比，中韩两国学者一边吃饭一边交流更便于增进感情，符合东亚人的美德。作为东亚人之一的韩国人，我希望中国和中国人一切顺利，与东亚一起携手合作走向世界。

在1988年汉城奥运会的歌曲中，有一句歌词叫“我们手拉手，推倒一切障碍”。也就是说，我们需要相互沟通，为了共同的目标携手并进。

从这个意义上说，我不久前去世的父亲在担任总统期间推动了韩国的“北方外交”，并与包括中国在内的许多社会主义国家建立了外交关系。我认为我们今天也有这样的机会。我们是为了跨越隔阂、实现共同发展而在这里相见的。

我个人认为，与老邻居中国朋友见面，共同思考现状和未来，是两国先知们留给我们的机会和遗产。希望今天的研讨会可以成为给大家带来帮助的有意义的会议。

此外，我父亲曾担任首尔亚运会和首尔奥运会的组织者，一直试图通过体育外交拉近国家与国民之间的距离。对此，我相信明年的北京冬奥会将是中国融入世界，让许多国家和人们真正了解中国的机会。

我诚心祝愿中国北京冬奥会成功举办。在中文中有‘马一到就成功’这样的话吧，我也说一句中文，“预祝北京冬奥会马到成功”，期待北京冬奥会的成功召开。

我认为理解他人是外交的基础，可以让我们打破壁垒，共同前进。减少彼此间的误会，设身处地为对方着想，寻找彼此间的最优解，这才是化解矛盾，化敌为友，共同前行的道路。

这意味着韩国的北方外交和中韩建交，以及韩国对中国的投资和技术转让，使得两国关系得到进一步加强。

回顾过去的历史，在中韩建交、韩俄建交、南北韩交流和维护和平体制过程中虽然有坎坷却是维护包括韩半岛在内的东北亚和平的原因之一。

人们都说当前东北亚的国际关系非常复杂。这就是现实的政治。但是，如果各国仅在现实政治框架内围绕安全 and 经济对峙的话，就难以实现和平与共同繁荣。

我觉得只有相互沟通相互协商，相互牵制至少要保持合作的联系，创造共同前进的机会，国家间的关系才能具有未来发展前景。国际关系的多边外交就是为了避免摩擦和战争，维持相互制衡、公平竞争的合作体制的外交。

我认为，韩国传统安全和未来愿景中的国家合作任务也必须在宏观框架内保持协调。比起过度的民族主义，邻国之间可以以四海同胞主义为基础为彼此着想，政府和国民之间的合作可以让矛盾转化为和平与合作。

按照父亲教给我的那样，要以忍耐、虚心接受历史现实的姿态生活，我希望东北亚和平与发展作为众多知识分子的历史性努力和最终目标，可以通过国家间的合作顺利实现。

尊敬的各位中国知识精英们，希望大家聚在一起享用中韩美食、品茶的美好时光可以早日到来。同时，祝愿韩国和中国的防疫事业都取得丰硕成果，北京冬奥会成为东亚和世界的盛会。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中美战略竞争给东北亚安全带来的影响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 팬데믹 시대 국제질서의 key defining factors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환경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특징은 COVID-19 팬데믹,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세계경제 침체, 미중관계 악화 등
- 국제체제 분절화의 원인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큰 원인 - 근간 국제질서에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 레짐과 제도의 퇴조, 거버넌스의 약화는 미중 패권경쟁의 일부로서 전개되는 강대국 정치, 지정학의 복귀에 따른 ‘G-zero’ 시대, 심지어 궤위(interregnum)의 시대로 불리는 현 국제질서의 특징
- 이러한 국제정세 혼란상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대응은 대체로 국내적 상황 개선에 중점 - 바이든 정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들은 COVID-19 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인프라 재건 등 대부분이 국내 문제들
- 외교정책에서 트럼프의 뒤를 이은 중국 때리기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아직 보이지 않으며, 바이든 외교팀에 대한 높은 기대와는 달리 외교의 난맥상이 나타나기 시작
- 중국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일대일로, 시 주석 3연임을 위한 6중전회의 ‘역사결의’, 사회주의 가치 확산 차원에서 빅테크 규제 등
- 미중 전략경쟁은 무역전쟁에서 시작했으나 가치, 체제, 이념의 경쟁 등 전방위적인 전략경쟁으로 확산

○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동북아 안보

- 미국은 중국과 본격적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기술적, 지정학적 우위 유지 추구
- 특히 기술경쟁은 미래 경제, 군사 분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국제표준 수립에 관한 경쟁으로 심화
- 이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과 대만 위협 등을 둘러싸고 인권, 민주주의 가치, 체제 등 이념 논쟁으로 경쟁의 전선을 확대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경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점
-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는 국제기구 형태의 대규모·보편적인 다자주의보다는 주로 목표 지향적인 소규모 연대의 형태를 띠며, 이미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다양한 그룹들이 등장 - ex) 미·일·호·인 4개국 협력체인 쿼드, 미국 등 5개국의 정보공동체인 파이브아이즈,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인 D-10, 선진 기술민주주의 연대인 T-12, 중국의 기술 굴기에 맞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내용과 형태도 다양
- 오커스는 쿼드에 비해 안보·국방에 더 중점을 두는 안보협력체 - 쿼드가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면, 오커스는 안보·국방에 분명한 중점을 둔 안보협력체

○ 동북아와 한국에 대한 함의

- 한국 등 미중 경쟁 사이에 낀 국가들은 선택의 문제에 봉착 - 문제는 미중이 경쟁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제로섬 성격의 문제들이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택의 압박에 봉착
- 미중 전략경쟁 심화는 지정학적 긴장의 제고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 - ex)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안보 대응, 코로나 팬데믹 대응, WTO 개혁 지연, 대만문제를 둘러싼 긴장 고조 등 글로벌 이슈의 난맥상 지속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후순위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정체로 인한 어려움 지속
-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복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y)와의 소다자 지역협의체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자체제와 의제 기반 소다자 협의체를 양립하는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中美战略竞争给东北亚安全带来的影响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 新冠疫情大流行时代国际秩序的关键决定因素 (key defining factors)

- 决定拜登政府的对外政策环境和新国际秩序的特征有新冠肺炎疫情大流行、国际体制的分节化 (systemic fragmentation)、世界经济衰退、中美关系恶化等问题。
- 在国际体制分节化的原因中，缺乏全球领导力是一个重要的原因。 - 在主要国际秩序中，现在国际秩序的特征是民主主义等各种国际政体和制度开始衰退，以及治理的弱化。因为中美霸权竞争的组成部分强国政治和地缘政治学的回归，现在的国际秩序也被称为零国集团 (G-zero) 时代和缺位 (interregnum) 的时代。
- 相较于较为混乱的国际形势，拜登政府将重点放在了改善国内问题上。 - 拜登政府目前最关注的问题有新冠肺炎疫情的应对、经济恢复、气候变化、基建重建等问题，其中大部分是美国国内问题。
- 在外交政策方面，拜登除了延续特朗普的牵制中国政策外，没有明显的特征。虽然人们对拜登政府外交团队的期待极高，但是目前在外交方面开始出现了混乱的情况。
- 中国在习近平体制下，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正在开展多种多样的项目- 一带一路、为实现习主席三连任的六中全会“历史决议”、在扩大社会主义价值的理念下加大对大型科技企业 (BigTech) 的监管等。
- 中美战略竞争虽然始于贸易战，但逐渐扩散到价值、体制、理念等领域，成为全方位的战略竞争。

○ 中美战略竞争的评价和东北亚的安全

- 随着美国正式拉开与中国竞争的序幕，美国开始遏制中国的崛起，维持在技术、地缘政治学方面的优势。
- 今后技术竞争将会逐渐扩大到新技术的研发及有关国际标准制定方面的竞争，新技术的研发及有关国际标准制定的竞争在未来经济、军事领域的竞争中处于较为优先的地位，并且能起到决定性作用。
- 同时，中美之间的竞争扩大到了理念争论的领域，具体来说，包括香港、新疆维吾尔自治区、西藏的人权问题的争论，以及围绕台湾威胁展开的人权、民主主义价值、体制的争论。

- 拜登政府虽然延续了特朗普政府的对华战略竞争政策，但拜登政府和特朗普政府的不同之处是拜登十分重视与同盟国和友邦国家的合作体系。
 - 美国主导的多边合作机制与具有大规模、普遍性的多边主义国际机构相比，呈现出以目标为导向，小规模合作的特点。目前已经有多个美国与合作国家建立的合作机制，例如，美日印澳四方安全对话（Quad）、由美国等五国组成的情报共享联盟“五眼联盟”、被称为“D10”的民主合作伙伴俱乐部、技术民主联盟“T-12”、美国-欧盟贸易和技术委员会（TTC）等多个不同内容、不同形态的合作机制
 - 和美日印澳四方安全对话相比，三边安全伙伴关系“奥库斯”（AUKUS）可以说是一个将重点放在安全和国防的安全合作机制。如果说美日印澳四方安全对话是一些想法相同的国家，为实现共同愿景，推动和平与繁荣而建立的较为灵活的合作机制的话，那么奥库斯则是一个明确将重点放在安全和国防上的安全合作机制。
- 对东北亚和韩国的意义
- 像韩国这样夹在中美竞争中的国家面临选择的问题。问题在于中美间的大部分竞争都具有零和博弈的性质，大部分国家都需要面临选择的问题。
 - 中美战略竞争的加剧不仅会扩大地缘政治学的紧张局势，还会让全球治理变得更为困难。例如，气候变化、网络安全、新冠肺炎疫情大流行、世界贸易组织的改革拖延、台湾问题的紧张局势等全球问题带来的混乱仍在不断持续。
 - 半岛和平进程的优先级降低，半岛无核化协商停滞带来的困难持续出现。
 - 从韩国的立场来看，有必要持续努力推动多边主义贸易秩序的恢复，同时，和相似立场的国家（like-minded country）积极建立小多边主义区域合作机制，在多边主义体制和以议题为基础的小多边主义合作机制中寻找均衡点也是一件有意义的事情。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论中美战略竞争给东北亚安全带来的影响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관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高级研究委员、前青瓦台国家安全室行政官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부형욱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s)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동맹국을 연결하여 대중 견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동맹국을 연계하여 이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견 중국을 국제질서에 순치시키기 위한 연성균형(soft-balancing) 전략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그 본질은 경성균형(hard-balancing) 전략이며, 이는 점차 군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임.

○ 미국의 전략은 2020년 9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미니한(Minihan) 장군이 미 국방대학원 세미나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호주의 전력을 엮는 네트워크 구상에 대해 논의한 것에서 잘 드러남.

○ 미국의 동맹활용 군사네트워크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에 대응한 군도방어개념 구현, 중첩적인 미사일 네트워크 형성, 역내 주둔 미군 분산배치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미군은 유럽에서의 주둔 규모를 점차 감축하고 인태지역으로 증강해왔음. 그러나 인태지역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중국에게 군사적 비용 부과 관점에서 한·일에 집중 배치된 미군을 인태지역 전반으로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상 중임.

○ 2010년대에 들어와서 동맹의 글로벌 및 지역적 역할이 강조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맹의 역할 재정의 문제가 크게 부각됨

-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한미는 안보협력을 넘어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 및 가치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표방
-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들어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맹국을 연결하는 군사네트워크 형성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큰 변화가 없음.

- 한편 2021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견제에 일정 부분 동참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음.
 - 이와 같이 한반도의 전략상황은 한미동맹의 지역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선긋기가 없을 경우, 대중 견제에의 연루를 예고하고 있음.
- 대중 군사 견제네트워크에의 동참은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있고, 한미동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주요 싱크 탱크들은 INF 파기 이후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500~750km의 프리즘(PrSM) 미사일, 사거리 1600km의 전략장사정포의 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음.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대중국 견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임.
 - *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AEI의 에버스타트 (Eberstadt)를 비롯한 많은 전략가들이 이미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합동긴급작전요구(JEON)에 의거하여 사드 발사대 원격배치, 사드-패트리어트 연동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정식배치도 추진될 것임.
 - 또한 미 공군 최신예 F-35 배치도 거론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공유(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음.
 - 상기의 자산들은 대북 억제는 물론 대중 견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군의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임.
-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주한미군 보호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명분으로 상기의 군사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도 구현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임.

论中美战略竞争给东北亚安全带来的影响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高级研究员, 前国家安全委员会行政秘书)

- 目前, 美国以维护自由主义国际秩序(Liberal International Orders)为名, 联合同盟国一同推进对华牵制战略。
- 美国的对外战略是联合维护自由主义国际秩序的同盟国一同牵制挑战该秩序的中国。表面上来看, 美国的外交政策看似是为了使中国遵循国际秩序而采取的软制衡(soft-balancing)战略, 但其本质却是硬制衡(hard-balancing)战略, 可能会逐渐朝着构建军事体系的方向发展。
- 2020年9月, 印度-太平洋司令部司令官米尼汉(Minihan)在美国国防大学的研讨会上对美国为了应对中国军事力量而提出的美日澳韩战略构想进行了探讨, 此举也侧面反映出了美国的战略。
- 美国利用同盟建立军事同盟主要体现在: 为应对中国的反介入和区域阻绝战略实施群岛防御概念、形成全面导弹防御系统、分散区域内美军部署等。
 - 一直以来, 美国在逐渐缩小在欧洲的驻军规模, 并将其部署到印度太平洋地区。但是印太地区的美军过度集中于韩国和日本。出于想让中国付出部分军事代价的目的, 美军被集中部署在韩国、日本。然而目前美国正在推进的战略构想是将这些美军分散部署至整个印太地区。
- 2010年之后, 同盟国家在全球及区域内的角色愈发重要; 随着驻韩美军的战略灵活性问题逐渐显现, 美国调整与同盟关系的重要性也日益突出。
 - 2013年发表的“纪念美韩同盟60周年联合宣言”中提出, 美韩同盟不仅仅是局限于国家安全方面的合作, 而是扩展到多方面领域合作的“全面战略同盟”, 并强调了美韩同盟不止局限于韩半岛, 而是全球同盟以及价值同盟。
 - 特朗普政府上台之后随着中美战略竞争不断深化, 美国正式开始建立军事同盟。这样的趋势一直延续到拜登政府上台后也没有出现太大的变化。
 - 另一方面, 2021年5月举行的美韩首脑会谈上, 韩国同意在一部分领域参与牵制中国, 这也印证了美韩同盟已经扩大到了区域内, 而不再只是局限于韩半岛。
 - 从韩半岛战略情况来看, 如果韩国政府在韩美同盟的区域角色扩大方面没有刻意划清界限, 那这就预示着韩国可能会参与对华牵制。

- 参与对华军事同盟意味着韩国将站在中美战略竞争的最前线；美韩同盟可能会将应对朝鲜核威胁作为重要战略推进。
 - 美国一些主要智库认为，中导条约失效后美国陆军正在开发的射程500-700公里的“远程精确打击导弹”（PrSM）、射程1600公里战略远程大炮的最佳部署地就是韩半岛。虽然该战略以应对朝核威胁为名在推进，但其也可用于牵制中国。

*特朗普执政时期，包括美国企业研究所（AEI）主任Eberstadt在内的多名美国军事家也提到过上述战略。
 - 此外，根据紧急联合作战要求（JEON），萨德发射台远程台远程部署、萨德-爱国者导弹联合运用已经基本完成。根据一般环境影响评估结果，萨德系统的正式部署也将继续推进。
 - 美国空军的最新型战机F-35也被提及；一部分关于重新部署战术核武器的呼声也在逐渐高涨。
 - 上述武器不仅可以压制朝鲜，还能够牵制中国，是符合美军战略目标的手段。
- 如果朝鲜进行战略挑衅，美军就可以以保护驻韩美军和履行对韩防御条约为由实现美国一直以来想在韩半岛部署军事武器的意图。

한반도 정세변화 추세와 한중협력

困境与出路：朝鲜半岛局势走向及中韩合作

파오둥쑤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및 국제정치학과 교수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한반도 정세변화 추세와 한중협력

파오동신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및 국제정치학과 교수)

2018년 한반도 정세 전환이후 관련국들간 상호 회동이 여러차례 추진되었지만 본질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한 상황.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지? 한반도문제의 구조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한중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음.

1. 한반도 정세 평가

첫째, 북미관계,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움. 가) 미국은 대북제재라는 지렛대를 포기하기 어려움. 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은 민주당 DNA 속성을 포기하기 어려움. 다)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전략의 종속변수.

둘째, 한미관계 발전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가)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 이해차이, 나) 남북간 안보 딜레마. 무엇보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도 홀시할 수 없는 변수. 따라서 남북간 군비경쟁의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첨단무기 한국 전개 및 (주권문제이긴 하나)한국 국방력 증강과 이것의 미국 전략체계 편입의 우려를 유발할 수 있음.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자 북핵위기 발발 30주년이 되는해.그리고 그 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난이도는 더 높아가고 있음. 따라서 설령 2022년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질적인 변화는 가져오기 어려우며, 불확실성이 동반될 것임.

2. '성숙기' 한중관계의 곤혹

한중관계 발전은 한때 "중국외교사상 기적"으로 불렸지만, 30주년이 다가오는 현재로서는 여러 측면에서 곤혹에 시달리고 있음.

첫째, 중미전략경쟁 심화로 인한 한국 전략선택 압력 증대. 미국은 대중견제에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한미관계 동향이 자못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예컨대, 미국의 대중견제 다자협력에 한국이 참여여부, 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한국 참여여부,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중국 배제 등.

둘째, 한중관계 양자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현안 구조적으로 작용. 가) 경제영역. 산업구조 경쟁성 강화추세, 나) 정치영역, 무엇보다 대북문제에서 북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불안. 다)사회영역. 양국 국민들 간 오해와 편견 서로에 대한 우호적 감정 잠식.

3. 한중협력 방향

첫째, 협력공간 확대를 통한 신뢰강화. 중미 전략경쟁 불안감 해소.

둘째, '2+2'등 대화메커니즘 업그레이드 필요성.

셋째, 양국 국민들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상대국 이해도 증대, 양국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야 함.

困境与出路：朝鲜半岛局势走向及中韩合作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朝鲜半岛局势反转以来，尽管朝韩以及半岛利益攸关国之间进行多次互动，但整体局势始终没有得到突破性进展。如何研判当前半岛局势？如何突破半岛问题的结构性困境？已成为中韩两国共同面临的重要课题。

一、当前半岛局势总体走向

首先，朝美关系困难重重、难有突破。尽管拜登政府主张对朝政策将是“经过调整后的务实方式”，表露出分步走路线的可能。但朝鲜仍然对这些变化感到不满意。第一，美国不会轻易放弃对朝制裁杠杆；第二，拜登政府对朝政策的民主党基因始终没有改变；第三，朝核问题终究是为美国大战略服务的。维护本国安全、获取战略利益是美国在朝核问题上的利益诉求。拜登认为美国的头号对手是中国，而盟友、外交、遏制是拜登政府半岛政策的核心。

其次，韩美关系发展使半岛局势变得更加复杂。第一，美韩尽管就朝核问题进行多次接触但始终未能向朝鲜发出积极信号。第二，朝韩双方陷入安全困局，军备竞争难以控制。韩国政府推出“国防改革2.0倡议”，开始缩减部队规模并提高部队军事现代化水平，从国外引进各种尖端武器的同时，加大国防科技领域自主研发力度。需要留意的是：第一，对朝鲜来讲这将是典型的“双标”行为，必将刺激南北双方新一轮军备竞赛；第二，美国解除韩国导弹限制与美国对华战略调整几乎同步，尽管韩方认为这是“主权”问题，但实则美国战略利益服务的可能性较大。

目前，朝美双方都对彼此比较谨慎，朝美关系进入新局面的可能性是存在的。但自1992年朝核问题爆发至今已近有30年，此间朝美关系经历无数次“戏剧性变化”，但就其结果来看，问题反而变得更加复杂，解决问题的难度也在不断加大。概言之，第一，半岛问题就算能够找出突破口，由于各方信任缺失以及问题复杂性，解决进程必然是长期的，而且其进程充满不确定性；第二，各方互动特征来看，冷战阴云仍未散去，冷战思维仍大行其道。

2、“成熟期”中韩关系所面临的困惑

中韩建交30年，两国关系在政治、文化，尤其是经济领域取得举世瞩目的成绩，一度被称

为“中国外交史上的一个奇迹、和平共处的典范”。但是，随着国际格局的变化以及中韩关系的深入，各种不和谐因素困扰双边关系进一步提升。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

第一，体系层面，随着中国崛起以及中美战略竞争加剧，亚太地区体系结构压力增大，韩国的大国外交战略面临着新的选择难题。美国为了挽回霸权衰落，要求韩国在中美之间选边站队，要求韩国配合美国的对华遏制战略。中方一定程度对此有些担忧也是事实，比如：韩国是否会加入美国旨在遏制中国的多边合作机制；韩国会否同意美国的韩国部署中导或新的反导系统；韩国会否与美日两国一起在半导体等领域排除中国，等等。

第二，中韩双边关系层面，对朝政策、历史问题、渔业纠纷、文化溯源、防空识别区，经济互补性下降等诸多议题容易被媒体操作并牵动两国人民感情。经济领域，随着中国经济发展以及产业升级，中韩经济合作互补型因素淡化、竞争性特征日趋明显；政治领域，朝鲜问题是中韩两国容易产生分歧的敏感领域。韩国对中朝关系发展存在矛盾心态：一方面，韩方认为中朝关系发展是改变朝鲜封闭状况，促其与国际社会接轨的重要窗口；另一方面，认为中朝关系深入有碍于朝韩关系发展。尽管中国致力于维护和发展与朝韩双方的合作关系，努力维护半岛和平稳定，但剧烈对抗的半岛内部结构以及在这种结构中产生的半岛国家内在机理，使这些国家无法消除对中国的战略疑虑。社会领域，历史问题、渔业纠纷、文化溯源等敏感问题经常使两国民众陷入无谓的“内耗”当中，而这种无休止的循环结构，蚕食两国民众对对方国家的友好情感。

三、互学互鉴、共同呵护中韩关系

首先，增进互信，扩大合作空间，消除战略竞争所带来的不安和焦虑。

其次，健全和提升对话机制，保障双边关系健康稳定发展。

最后，让民众的理解和支持成为中韩关系健康发展的“稳定锚”。

한중 양국간 해양분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如何应对中韩两国之间的海洋问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梁熙喆

韩国海洋科技院海洋法与政策研究所所长

한중 양국간 해양분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1. 한중 해양분쟁의 복잡성

한중 해양문제는 양자간 이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이고 거시적 안보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해양문제를 양자간 활동공간으로 구획하여 접근할 경우와 해양권익(힘의 투사) 영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라면 양자간 결정과 협력 범위가 매우 넓다. 양국 해양협력의 강도에 따라, 제3국의 진입이 자연적으로 제한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실상 한중을 포함한 동북아 해양문제는 지역해와 지역해를 연동하는 해양전략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황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축(軸)은 사실상 전략적 충돌지대로 전환된다. 이 지역은 특히 좁은 방위 종심(縱深)을 형성하게 되어, 내외부적 충돌과 위협 효과도 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후자에 의할 경우, 동북아 해양 협력이슈는 경쟁/전략적 안보이슈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되어, 극히 제한적이고 수동적 협력만 가능하게 된다.

이에, 한중은 국제적 확산 이슈로부터 양자간 이슈와 지역민 생존이슈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외부 갈등개입 요소로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해양분쟁 조정과 대응방향

1) 세력간 충돌이슈와 연안국 간 충돌이슈의 분리 : 현재 진행되는 국제적 패권경쟁은 기존 구도(질서)의 균열을 전제로 하는 세력/질서 재설정과 연결된다. 이러한 세력충돌은 국제법 보다는 정치외교적 수단이 사전에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조정력에 실패한 사례다. 미국은 국제법을 가동하고, 중국은 국제법을 회피하였다. 미국은 남중국해 연안국을 활용하였고, 중국은 연안국과의 새로운 협력 제언과 함께 충돌방식을 동시에 유지하였다. 본 사례에서 중국과 미국은 정치외교적 세력간 조정 접근방식을 외면하였다. 정치적 조정력이 아닌 갈등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지역해와 지역해가 연동된 구조의 갈등에서 심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남중국

해와 같이 복잡한 대립구도가 작동되는 사안에서 국제법적 해결은 종종 정치적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과 법적 해석의 모호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모호성이 국제규범과 정치적 대립축을 형성하는 세력간 갈등구조를 반영하고 있을 경우, 국제법의 역할과 판단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많은 희생을 동반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지역해 분쟁이 연계된 구도에서, 독립된 지역해로 관리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한중 간 황해 관리방식은 양국의 의지에 따라, 복합적 이해관계가 얽힌 기타 해역과 구분된 양자간의 반폐쇄해로 관리가 가능하다.

동아시아 해양분쟁 형태를 보건대, 지역해 문제는 (1) 양자간 이해관계를 갖는 분쟁, (2) 2개국 이상의 다자간 해양분쟁으로 구분된다. 황해가 (1)의 예에 해당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2)의 예에 해당한다. 이중 후자는 연안국간 대립구도가 쉽게 국제분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1)과 (2)의 분쟁유형이 해역 특성에 의해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계 국가의 관리의지와 제3의 주체에 의한 개입의지에 따라 분쟁 양상은 쉽게 국제화 될 수 있다. 황해 역시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게 있으나, 다자 연안국간 대립 구도가 아니라는 점, 한중 양국에 의한 폐쇄적 해양공간관리 정책이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한중 해양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 양자이슈 중심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습관적 경쟁심리에서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협력으로 전환 : 해양 패권경쟁의 특징은 자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기꺼이 동원한다는 점이다. 모든 통제 가능한 국가 자원(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성이슈와 연성이슈가 쉽게 연동된다. 한중간 인접해역은 직접적 패권경쟁 보다는, 국제적 패권경쟁의 영향권에 들어 있을 뿐이다.

사실 황해권의 갈등이슈는 남북간 문제 외에 다른 지역해에 비하여 직접적인 경성이슈는 찾기 힘들다. 현재의 황해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국가 간 무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습관적 경쟁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가 간 습관적 경쟁과 ‘신뢰’ 부재 사이의 간극을 보완할 새로운 주체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간 경쟁 이익을 뛰어 넘을 만큼의 비경성형 상존 이슈의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의 새로운 주체는 당연히 ‘환황해 지역민, 혹은 환황해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양환경보전, 해양질병대응, 기후변화대응, 해상교통로 안전망구축,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해양재난 대응은 ‘지역해 및 지역민 생존권’의 문제로 가장 강한 연대 고리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양국의 핵심이익, 해양안보에 대한 기준의 완화 : 한중간 이해를 같이하는 해양공간은 황해, 동중국해 북부 수역이다. 세력운용과 해양력 투사의 개념에서 보면, 동중국해 전체와 동해, 남중국해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모든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전망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의 해양안보 공간의 중심을 관통하는 유사성이 있다. 해양공간의 군사적 가치와 패권경쟁이 증대될수록, 해양의 가치평가와 관리정책을 결정이 안보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 사실상 경계미확정 수역(사실상 영해 외측 전체해역)의 모든 행위는 안보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모호한 공간은 여지없이 안보적 의사결정이 개입된다. 해양환경, 해양생물자원 보전과 같은 가장 낮은 수위의 해양협력 이슈조차 쉽게 안보이슈가 먼저 지배하게 된다. YSLME(광역생태계사업,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해양환경공동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중 양국은 상호 민감할 수 있는 해양안보로부터 순수 해양관리정책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시적 해양전략의 틀에서 보면, 한중간 모든 해양정책은 안보정책으로 변질되고 민감해진다. 제3국의 이해가 없는 해양공간은 평시적 관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결론

양국은 2015년 이후 이미 2번의 차관급 회담, 8차례의 국장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양국의 해양관할권을 확정시킨다는 점에서 모호한 활동해역의 범위를 대폭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양국 국민의 활동범위도 명료해진다. 그 다음 단계는 양국이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황해라는 지역해 관리의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양국의 조속한 경계획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해양경계획정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과 경쟁, 분쟁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국은 해양경계 미확정 상황에서도 어업협정이라는 좋은 협력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긴장과 분쟁을 저감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한중 해양문제를 다자간 이슈로 관리할 것인가 혹은 양자간 이슈로 접근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1) 해양협력의 범위와 신뢰강도의 제고(협력의 수위), (2) 해양분쟁을 타 영역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양국 의지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안보적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지역해와 지역해를 연계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한중 해양문제를 접근할 경우 사실상 협력 개념은 형성되기 어렵다. 양국의 해양안보에 대한 해석과 정의를 낮은 최대한 낮게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 해양논쟁 문제

中韩海洋争议问题

주 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한중 해양논쟁 문제

주 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한중 해양논쟁 문제는 고질적이며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양국은 해양 경계 확정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지만, 매번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000년, 양국은 잠시 논쟁을 멈추고 <한중어업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해양 경계 확정 문제가 해결 되기 전 어업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수월한 관리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한중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많은 중국어선이 한국 해양경찰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며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중조업 분쟁으로 야기된 어민 및 해경 사상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최근 들어 양국의 조업 분쟁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갈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한국 해양 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5척이었다. 지난 3월 4일 오전과 저녁 무렵 한국 해경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하였다. 곧이어 19일 20일 21일 삼일 연속으로 ‘불법조업’이라는 이유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5월 12일 한국 해경은 ‘불법조업’을 이유로 20t 중국어선 한 척을 억류하였고 또 다른 3척의 어선을 퇴치하였다. 10월 30일 중국어선 한 척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 해양경찰에 나포되고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한중 조업 분쟁은 사실 해양 경계 확정 문제의 연장선이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 확정 문제는 양국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다. <UN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 끝을 기준으로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의 해안선은 최대 280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겹치게 된다. 한국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로 하자는 입장이고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주장이다. 한중 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법의 원칙과 이념에 따라 협상과 대화의 방식으로 공평하게 황해 경계 확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국은 해양 경계 확정 회담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이 불완전하고 불명확하며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며 다른 현행법으로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중 해양 경계 확정 문제는 이어도 귀속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이 치열하며 양국 간의 해양 경계 확정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

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한중 양국은 국장급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14차례나 개최하였고 해양 관련 사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하였지만, 일부 원칙과 입장 간 의견 차이를 보여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2015년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재개하였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담이 중단되었다. 2016년 4월 22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한중 양국은 국장급 해양 경계 획정 회의를 5차례 개최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제2차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하였다. 여러 차례 경계 획정 회담을 개최하였지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중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자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발전을 거뒀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또한, 협력 잠재력이 크며,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 양국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해양 경계 획정 문제는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중 양국관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 됐다. 이 때문에 한중 양국은 국제법과 위기관리에 따라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해야 하며 해양경계 획정 문제의 악화로 인해 한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회담을 진행하면서, 조업 분쟁을 포함한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양 경계 획정 문제 해결에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해상 법 집행 관할 및 어민의 권리 보호, 정보통신 규범과 같은 방면에서 보완될 부분이 존재한다. 기존의 규범으로는 양국의 조업 권익 보장 및 해양 종합 거버넌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업 구역 획정에 따라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어업 자원 분배 사안에서는 역사적 조업권과 어업 자원의 배분 및 회유 특성을 고려하여 난항을 겪던 경계 획정 사안에서 조업 협력 및 공동 관할을 추진하고 어업자원의 보호와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조업 구역 획정 규칙은 강화된 정보통신규범 제도를 포함해 정보통신의 시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법 집행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권리를 적절히 확대하고 분쟁 해결 기재를 만들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신뢰를 증진하고 의심을 지우며 상대국의 중대한 사안을 존중하고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양국 협력과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추진해야 하며 해당 사안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해양 경계 획정 회담 개최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루빨리 협력과 협상을 통해 공평한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中韩海洋争议问题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中韩海洋争议问题由来已久且错综复杂。在两国多轮海域划界谈判没有结果的情况下，双方决定暂时搁置争议，于2000年签订了《中韩渔业协定》，将其作为海域划界问题解决之前针对渔业资源开发利用和养护管理的临时性安排。然而，《中韩渔业协定》签订以来，每年都有大量中国渔船被韩方扣押，甚至还出现了暴力案件。据相关数据统计，2007—2016年，中韩渔业纠纷导致的渔民或海警伤亡事件达78起。近些年来，两国渔业冲突虽有所放缓，但矛盾纠纷依然频发。2021年3月份就发生了5起韩国海警扣押中国渔船的事件。在该月4日上午和傍晚，韩国海警两度扣押共计4艘中国渔船，又于19日，20日，21日连续三天皆以“非法捕捞”为由扣押了中国渔船。5月12日，韩国海警以“非法捕捞”为由，扣留1艘20吨级中国渔船，并驱逐另外3艘渔船。10月30日，一艘中国渔船因涉嫌违反《韩国专属经济区对外国人渔业活动行使主权的相关法律》而被韩国海警扣押并被移送至济州港。

中韩渔业纠纷的实质是海域划界问题，特别是专属经济区的划界问题，成为双方争议的焦点。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规定，沿岸国家最多可以划定200海里的专属经济区，但中韩之间的海域最宽只有280海里，专属经济区必然会重合。韩国建议以两国海岸线的中间线划界，中国则主张应该以大陆架为标准，根据整个海岸线长度的比例划分海域。中韩作为《联合国海洋法公约》的签署国，均认同依据国际法的原则和精神，以协商谈判的方式公平解决黄海划界争端，两国也努力推进海域划界谈判。但海洋法公约本身具有的妥协性和模糊性及其他现行法理机制的不适用性，使中韩倾向于选择使本国利益最大化的划界原则。更为重要的是，由于中韩海域划界问题直接关系到苏岩礁的归属，因而争议更加激烈，致使两国间的海域划界谈判无法取得实质性进展。

从1996年到2008年，中韩两国举行过14轮司局级海域划界会议磋商海洋事务，但两国在一些原则立场上的分歧依然十分突出，谈判进展缓慢。2015年，中韩重启海域划界谈判，然而由于双方无法就部分海洋问题达成一致意见，谈判进程中断。2016年4月22日到2019年1月17日中韩共举行了五次司局级海域划界会议，再到2019年7月两国在北京举行中韩海域划界政府谈判代表团第二轮会谈，多轮的划界谈判会议仍未推动海域划界问题取得实质性进展。

中韩两国是一衣带水的近邻，自1992年建交以来，双边关系实现了全方位、跨越式发展，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深化，巨大合作潜力得以充分发挥，稳定和发展双边关系是两国政府和

人民共同的期许。海域划界问题是两国双边关系的重要组成部分，妥善解决中韩两国在重叠专属经济区的划界问题，已经成为目前决定中韩关系未来走向的关键因素。因此，中韩需要从国际法和危机管理的角度来正视并处理该问题，避免问题恶化对中韩关系造成不可挽回的破坏。

在谈判步骤上，首先解决双方共同关注的包括渔业争端在内的重点问题，更有利于划界谈判工作的推进。《中韩渔业协定》执行近20年来，在海上执法管辖、渔民权利维护、信息通报规范等方面暴露出不足与问题，原有的规范已经无法满足两国保障渔业权益、推进海洋综合治理的要求，应对渔业安排进行重新协商。

在渔业资源分配问题上，应当更加尊重历史性捕鱼权和渔业资源本身的分布和洄游特性，在难以划分水域协商进行渔业合作、共同管制，以促进渔业资源的养护和发展；在新的渔业安排规划中，还需要加强信息通报规范制度，提高信息通报的时效性与透明度；建立执法监督反馈，更好地规范执法方式；

适当扩大中韩渔业联合委员会职权，设立争端解决机制，通过对话化解纠纷。同时，两国应该增信释疑，尊重对方的重大关切，为海域划界谈判创造稳定的大局环境。在此基础上，不断拓展两国合作和划界谈判的空间，在划界问题上积极寻找利益妥协点，减少谈判划界的阻力通过合作与磋商早日实现公平划界。

미중 경제관계: 디커플링에서 리커플링으로
中美经济关系: 从脱钩到重新结合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미중 경제관계: 디커플링에서 리커플링으로

이왕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의 기초가 대치에서 대화로 선화하고 있다. 지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시장의 규모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반드시 교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10월 9일 류허 부총리와 화상을 통해 회담하였다. 26일에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류허 부총리와 화상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고위급 회담은 미중 경제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타이 USTR 대표는 10월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경제관계 목표를 설명하였다. 탈동조화(decoupling)를 목표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재동조화(recoupling)을 추진한다.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영향을 핵심적인 제품에 대해서만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타이 대표는 중국과 긴장관계 악화가 아니라 오래가는 공존(durable coexistence)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탈동조화는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목표이지만, 재동조화도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무역전쟁 이후 미중 교역 통계를 보면, 미국의 대중 교역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무역적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보복관세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대중 무역적자는 2019년 7월 이후 최대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무역불균형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에 있다.

미국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보복관세의 철폐가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중국과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차선책으로 관세 면제 품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USTR은 지난 5일 산업부품, 온도조절기, 의약품, 자전거, 의류 등을 포함한 549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면제 검토 절차를 공고하였다.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이 지난 6월에 만료되었다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협상을 체결하고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한 수정 없이 비준만 결정한다. 반대로 이 권한이 없을 경우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 협상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 달 1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가를

신청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 포기가 중대한 실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참석 기업에게 45일 내로 반도체 공정, 기술, 고객, 영업 정보 등 총 14개 항목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동맹국이 미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中美经济关系：从脱钩到重新结合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拜登政府的对华贸易政策正在从对抗转向对话。上个月24日，美国商务部长吉娜·雷蒙多在接受《华尔街日报》采访时强调，鉴于中国市场的庞大体量，美国必须与中国进行贸易。10月9日，中国国务院副总理刘鹤与美国贸易代表戴琪举行了视频会议。26日，又与美国财政部长珍妮特·耶伦进行了视频通话。这一系列的高级别会谈释放出中美经济关系或将回暖的信号。

10月4日，美国贸易代表戴琪在战略与国际研究中心（CSIS）发表讲话，概述了拜登政府对中美贸易关系的新方针。戴琪表示，与旨在脱钩(decoupling)的特朗普政府不同，拜登政府正在推动重新结合(recoupling)。由于无法与中国完全断绝往来，因此只会加强管控对国家安全相关的重要产品。在此背景下，戴琪则主张，美国的目标不是激化与中国的贸易紧张关系持久共存(durable coexistence)是符合美国国家利益的现行方案。

虽然脱钩是一个无法实现的巨大挑战，但是重新结合也并非一件易事。根据贸易战之后的中美贸易统计显示，美国对华贸易略有缩减，但贸易逆差并未减少。尽管美国采取了报复性关税和制裁政策，但是8月份对华贸易逆差仍升至2019年7月以来的最高水平。贸易失衡没有得到快速解决的根本原因在于美国制造业的空心化。

随着美国物价压力的进一步加大，美国正在讨论取消对中国商品征收报复性关税的替代政策。若取消关税会使进口商品的价格下降，这可能有助于抑制物价上涨。然而，现在无法采用这个方案。因为，这会让美国放弃与中国协商时的最有效的筹码。目前，拜登政府将推动扩大免税项目作为最佳解决方案。5日，美国贸易代表办公室公布，将探讨重新豁免包括工业零部件、温度调节器、药品、自行车、服装等在内的549类中国进口商品的关税。

美国总统贸易促进权于6月到期，这可能会对拜登政府产生不利影响。在拥有这种权利时，总统负责签订协议，国会只能决定批准而不能修改协议结果。相反，若没有这个权利时，总统需要与国会进行谈判和协商。上个月17日，中国申请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时，有人则批评拜登政府放弃贸易促进权是一个严重的错误。

拜登政府为了弥补这些短板需要与盟友国开展合作。为了将中国排除在高科技供应链之外韩国、日本和台湾的帮助必不可少。然而，现在拜登政府的半导体供应链政策却给盟友国带来沉重的负担。美国商务部要求芯片供应商在45天内向美国主动提交包括半导体工艺、技术、客户信息、销售记录等在内的14项商业机密，以查明供应链瓶颈问题。美国商务部威胁称，若相关企业不自愿合作，美国将通过《国防生产法案》(DPA)强制企业提交信息。如果拜登政府以这种方式进行施压的话，其盟友国自愿与美国合作的可能性将会越来越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한 협력 필요
中韩应合作推进朝鲜半岛和平机制建设

왕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및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한 협력 필요

왕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및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1. 평화 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에 모멘텀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 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올해 들어 한미 양국 대북 특별대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섯 차례 회담을 가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해 관계국의 군비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이익과 상충한다. 평화 체제 구축은 현 국면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북한은 ‘병진노선’의 실질적인 중단이 아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전략 무기 개발에 힘 쏟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된 후 한국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 중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공식 석상에서 “만약 당선된다면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기고문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의 이익과 크게 상충한다. 평화 체제 구축 프로세스 추진은 비핵화 협상과 군비 경쟁 중단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2. 평화 체제 구축의 기본적인 합의

본 체제 구축을 위해선 남·북·미·중 평화 협정 체결, 남북 관계 정상화, 북미 평화 협정과 관계 정상화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남·북·미·중 4자 간 ‘한반도 평화 협정’과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남북 평화협정’ 및 ‘북미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남북 관계.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과 2018년 합의한 변경지역 행위 원칙인 ‘9·19 군사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가능하다. 2,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우선 상대국 수도에 연락 사무소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한미 동맹의 범위와 주한 미군의 역할. 4, 북한 핵무기 문제.

3.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중국은 ‘종전선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다자간 국제 조약은 일부 체결국이 체결한 국제법 문건으로 변경하거나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3년 체결한 남북정전협정의 정식 종결은 당시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공동 참여가 있어야만 그 효과가 유효하다. 당시 남북정전협정은 남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과 덩화 중국 대표 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및 ‘UN군 대표’이자 미군 극동 지구 해군 사령관인 찰스 터너 조이 (C.Turner Joy)와 한국 1사단장 백선엽이 참여했다. 비록 관련국들은 ‘종전선언은’ 법률 문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남북정전협정을 정식 종결하려면 당시 체결국인 중국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많은 희생을 했던 주요 참전국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통계마다 다르지만 6·25 전쟁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군인이 희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반도는 총 22만km²이므로 1km²당 중국 군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6·25 전쟁을 위해 각종 군수물자를 총 560만 톤과 당시 25억 달러에 해당하는 62억 5천만 위안을 전쟁 비용으로 사용했다. 1953년 당시 중국의 GDP는 겨우 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남북 전쟁 정식 종결을 선언하는데 주요 참전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도리상 말이 안 되고 정서상 전쟁에서 희생한 수많은 장병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4.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한 협력 필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중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1, 한반도 사안에서 중한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 해결 등 국가 이익과 원칙 및 입장이 고도로 일치한다. 2, 중한이 각각 북한 및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국 협력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 3, 중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면 중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 일정 수준의 중미 협력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미·중 사이에서 ‘줄서기’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 4, 2022년에 중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므로 양국은 한반도 사안에 있어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내실을 한층 더 다지고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1) 중한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이 호전된다면 중국 지도자의 조속한 방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나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중한 양국은 조속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해결 로드맵 연구 및 마련에 착수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 추진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中韩应合作推进朝鲜半岛和平机制建设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一、和平机制建设有望为半岛无核化注入动力

韩国总统文在寅9月21日在联合国讲话中再次提议应宣布“终战宣言”。今年以来，美韩两国负责半岛事务的特使围绕该问题已举行六轮会谈。美国常务副国务卿温迪·舍曼10月19日在纽约举行的一场活动上表示，美方已与朝鲜直接接触。

当前半岛局势处于十字路口，相关方军备竞赛之势明显有悖于我方利益，和平机制建设有望成为扭转局面突破口。无核化谈判陷入停滞的后果已经显现，朝鲜并未真正停止“并进路线”，而是重点发展潜射导弹和巡航导弹等战略武器，美国给韩国导弹发展“松绑”后，韩国也在大力发展潜射导弹等战略武器，韩国总统候选人尹锡悦9月甚至公开表示“如若当选他将允许美国在韩部署核武器等”，美国《华盛顿邮报》10月公开发文支持韩国独立发展核武器，这些都明显有损于我方利益。通过推动半岛和平机制建设进程，有望为无核化谈判和各方停止军备竞赛注入动力。

二、和平机制建设的基本内涵

从机制内容上看，至少应包含三大部分：中、美、朝、韩签署和平协定；朝韩关系正常化美朝签署和平协定与美朝关系正常化。因此，至少应签订三份文件，即由中美朝韩四国签署《朝鲜半岛和平协定》，在1991年的《朝韩基本协议书》基础上签订《朝韩和平协定》，以及签订《美朝关系正常化协定》。

同时，还需统筹考虑以下问题：1、朝韩关系问题。可推动朝韩在对方首都建立联络处，认真落实两国2018年达成的边境地区行为准则，即《9.19军事协议》；2、美朝关系正常化问题。美朝关系正常化是半岛和平机制建立的最重要条件，可考虑在对方首都先建立联络事务所；3、美韩联盟范围及驻韩美军功能；4、朝鲜核武器问题。

三、中国应该积极参与

对于“终战宣言”，中国应该积极参与。其中一个原因在于根据国际法基本原则，一个多边国际条约不能由部分缔约国所签署的国际法文件来改变或终止。要正式结束1953年签署的《朝鲜停战协定》，只有在该协定当年签署方的共同参加情况下才能有效。当年的《朝鲜停战协定》是由朝鲜的人民军总参谋长南日和中国代表志愿军副司令员兼副政治委员邓华，以及“联合国军代表”、实际是美国远东海军司令乔埃和韩国第1军团团长白善烨等参与的。尽管

有关国家多次指出“终战宣言”并非法律文件，只是政治姿态，但不管是什么，只要是正式结束《朝鲜停战协定》的文件，中国作为当年的签字方当然不可缺少。

另外一个原因在于中国当年为朝鲜战争付出了巨大的牺牲，是众所周知的战争主要参与方。虽然有不同的统计数据，但普遍认为在朝鲜战争期间中国牺牲军人近20万人，朝鲜半岛共22万平方公里，这就意味着朝鲜半岛每平方公里几乎就有一名中国军人牺牲。据有关统计，中国为进行抗美援朝战争共消耗各种作战物资560余万吨，战费62.5亿元人民币、相当于当时的25亿美元，而中国1953年的GDP才是200亿美元。要宣布朝鲜战争正式结束，如果作为主要战争参与方的中国不参与，“于理”说不过去，“于情”也对不起那场战争牺牲的中国无数将士。

四、中韩应合作推进半岛和平机制构建

在当前半岛和平机制构建的关键时刻，中韩合作至关重要。1、中韩在半岛问题上的国家利益与原则立场极为接近，比如无核化、半岛和平稳定、对话解决等。2、考虑到中韩两国分别与朝鲜和美国的关系，中韩合作有利于带动美朝对话。3、通过中韩合作带动半岛问题解决，也能带动中美合作，而一定的中美合作又符合韩国推进半岛问题解决和在中美间“不选边站”的考虑。4、2022年即将迎来中韩建交30周年，中韩在半岛问题上的合作也能进一步扩充中韩关系内涵，能进一步推动中韩关系发展。

为此，（1）加强中韩高层互动，加强顶层设计。一旦新冠疫情防控形势允许，应创造条件尽快实现中国领导人访问韩国，面对面共同谋划如何推动半岛局势积极发展。（2）中韩两国应尽快着手研究制定半岛和平机制构建和半岛无核化问题解决路线图，积极引领半岛问题解决进程。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안보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中韩关系发展的建议——围绕军事安全领域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李昌衡

大陆战略研究所所长, 韩国国防研究院名誉研究委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안보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한중 안보군사협력의 환경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나, 2016년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이후 양국관계의 경색으로 안보군사 분야의 교류도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회복국면

한편, 작금의 안보환경은 양국의 안보군사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중 전략경쟁 및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적인 국제질서,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등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한중 간의 안보군사 교류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

글로벌 및 지역적 이슈의 관리

미국은 인태전략, QUAD, INF 등에서 한국의 어려운 입장을 공감하면서 직접적인 요청(요구)이나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

반면 중국은 미중경쟁에서 한국에 분명한 입장을 선택하라는 등의 요청과 요구를 지속함.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음.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따라 선택할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 상 국민여론이 상당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은 한국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선에서 대화와 협력을 해야할 것임.

한반도 및 한중 양자 간 안보이슈의 관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중 상호의 국익에 부합하는 사안임. 다만 접근방법과 프로세스에서 이견이 있음. 한중, 남북중, 한미중, 남북미중 등의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임.

한중 양자 간에는 해양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KADIZ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중간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및 다중적인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야 함. 양국 간에 구축되었으나 유명무실한 다양한 Hot-line의 활성화가 필요함.

中韩关系发展的建议 ——围绕军事安全领域

李昌衡

(大陆战略研究所所长，韩国国防研究院名誉研究委员)

中韩军事安全合作环境

中韩建交之后，虽然双方升级为战略合作伙伴关系，但2016年驻韩美军在韩国部署萨德（THAAD）后，在军事安全领域的交流因两国关系的僵化而中断，文在寅政府上台后进入恢复阶段。

同时，最近安全环境成为制约两国军事安全领域交流和合作的因素。中美战略竞争、围绕韩半岛的对立的国际秩序、中朝关系的特殊性以及韩美同盟等正产生负面影响。

尽管如此，对于维护东亚和平与稳定和处理韩半岛危机等问题，则迫切需要中韩之间的军事安全交流合作。

全球及地区事务管理

美国在印太战略、美日澳印（QUAD）机制、中导条约（INF）等方面，理解韩国的艰难立场，因此没有直接要求韩国选边站。

相反，中国在中美竞争中不断要求韩国做出明确的立场。在这方面，美国和中国是有区别的。

韩国将根据韩国的国家利益进行选择，基于民主主义国家的特性，国民舆论可能成为重要的判断标准。因此，中国应在了解韩国安全形势特殊性的基础上开展对话和合作。

韩半岛及中韩安全问题的管理

朝鲜无核化和建立韩半岛和平机制符合中韩两国共同利益。但是，两国在方法和过程中存在分歧。因此，应积极利用中韩、中韩朝、中韩美、中韩朝美等对话渠道，以和平的方式解决问题。

中国渔船在海上非法捕捞、中国在韩国防空识别区（KADIZ）的军事活动正在中韩两国之间造成严重的问题。因此，应建立对话和多种合作渠道，以防止中韩之间发生意外冲突，并应对危机。此外，有必要激活两国之间已经建立但徒有虚名的各种热线（Hot-line）。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关于改善中韩关系的建议

장징첸

산둥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 및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장징첸

(산둥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 및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한중 양국은 곧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거기에 한국은 내년 대선을, 중국은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세계의 거대한 변혁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제동, 강대국 간 경쟁 격화로 한중관계의 중요한 시기가 양국의 국내 정치 발전과 맞물려 한중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고, 이와 동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요 갈등을 파악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양국은 동계올림픽과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강국인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동계올림픽 한중 선수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국 국민은 상호 인식을 개선하고 우의를 다질 수 있다. 동계올림픽에서 양국 협력을 널리 알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 전에 미리 열기를 복돋는 것이다. 수교 30주년이 되면 양국은 민간 차원에서 수교가 양국 발전에 가져올 혜택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방식(예를 들어 상대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과 현지 주민과의 상호 활동)으로 홍보하고, 더 높은 수준과 더 많은 횟수의 인문 사회와 혁신 창업 교류를 통해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양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해양 거버넌스에서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한중 양국은 세 가지 큰 시대, 즉 코로나 시대, 글로벌 해양시대,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불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을 주축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지역의 방역과 해양 거버넌스, 경제발전의 안정화는 글로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점을 고려했을 때 한중 양국은 인적 교류 과정에서의 격리 조치와 백신의 상호 인정 등 규범과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역내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호연호통(互聯互通)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얼마 전 한국이 중국 어민을 구조한 것은 양국이 해양문제에 함께 대응하여 윈윈했던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글로벌 해양시대에서 해상 구조, 해양 환경 관리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양국은 크로스보더 물류, 크로스보더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RCEP 협력의 프레임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실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께 CPTPP에 가입하고,

아세안+3,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SC) 등 다자기구와의 제3자 시장협력을 통해 자국 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동북아 역내 발전의 지역화와 안보화의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미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장기화될 것이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으로 중미 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줄서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동시에 거둬지는 북핵 문제는 동북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판가름할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중 양국은 장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선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권이 출범하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처럼 양국 관계와 지역 안보 정세를 후퇴시키는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 현재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의 등장으로 핵무기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비확산 정책에서 조건부 확산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특수한 방식의 전환으로 중국과의 경합에서 미국 동맹국으로 승부사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에 잠재적인 핵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호주에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민감한 기술 확산 정책의 주요 타깃 중 하나다. 동북아 지역은 핵 억제력이 약화된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한국은 올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중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직접적인 편들기는 피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대북 관련 방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로서 에너지와 식량 두 분야의 협력을 해야 한다. 2020년대에는 비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준비해야 한다.

关于改善中韩关系的建议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中韩两国即将迎来建交三十周年，而韩国也将在明年迎来总统大选，中国也要迎来第二十届党代会。可以说，世界大变局之动荡、东北亚局势之转圜、疫情常态化之掣肘、大国竞争之激化，与中韩两国关系的重要节点和两国各自国内政治的发展交融在一起，为两国关系迎来了新的契机，也带来了十分严峻的挑战。在这一背景下，我们需要抓住主要矛盾，有的放矢，推进中韩关系行稳致远。具体可以从近期、中期以及长期三个方面着手。

近期来看，两国应该抓住冬奥会和中韩建交30周年的契机。中韩两国都是冬奥会冰雪项目强国，通过冬奥会中两国选手的良性竞争，在舆论的妥善引导下，有助于两国民众改善对对方的知觉，提升民间情感。通过冬奥会中对两国合作的宣传，可以成为2022年中韩建交30周年系列活动的预热。建交30年之际，双方应该从民间层面积极总结建交为两国发展带来的好处，借机通过线上和有条件的线下方式（例如通过两国在对方驻各地的大使馆、使领馆与当地民众的互动）进行宣传，并通过一系列更高水平、更高频次的人文社会与创新创业交流，提升两国的切实合作水平。

中期来看，两国应该在疫情防控、经贸合作以及海洋治理上提升合作水平。中期来看，中韩两国共同面临着三个较大的“时代”：后疫情时代、泛海洋时代和全球经济与供应链动荡时代。在这种情况下，中韩两国为核心推动东北亚区域疫情防控、海洋治理和经济发展的行稳致远，将对全球发展带来重大影响。有鉴于此，针对疫情，中韩两国应该进一步加强双方人员交流过程中的隔离、疫苗互认等规范标准，逐步实现区域内两国较高水平的互联互通，为走入后疫情时代奠定基础。在海洋治理方面，前段时间韩国救助中国渔民的行动很好地体现出两国共同应对海洋问题的双赢结果。因此中韩两国应在泛海洋时代加强在海上救援、海洋环境治理等方面的合作。针对当前全球经济动荡和供应链问题，中韩两国应该加强在跨境物流、跨境区块链、数字经济等关键领域的合作。同时，中韩两国应该在共同加强和落实RCEP合作框架的基础上，携手迈进CPTPP，并通过东盟10+3、中日韩三国秘书处等多边机构和第三方市场合作，为本国经济和地区经济发展注入活力，打破东北亚区域发展中区域化与安全化的悖论。

长期来看，中美战略竞争之态势将会长期存在，而美国拜登政府对盟友的施压、韩国是否在中美两国之间“站队”也将越来越重要。同时朝核问题的反复也成为横亘在东北亚命运共

同体建设的一个关键问题，这些都需要中韩两国建立长期共识。首先，韩国方面无论明年大选中哪一派上任，都应该主动保持自我克制，不做朴槿惠政府引入萨德这种直接让两国关系和地区安全局势倒退的举措。当前，美英澳三国AUKUS联盟的出现，凸显出美国对核武器等敏感技术的态度正从不扩散政策向着有条件扩散的方向转变，试图通过特殊方式的转让提升美国盟友在中国博弈过程中的筹码，这也是在将潜在的核灾难引入亚太。澳大利亚之后，韩国与日本更是成为美国敏感技术扩散的主要目标之一。而东北亚地区本身也面临着核威慑弱化的问题，韩国方面更是在今年解除了导弹制造的限制。有鉴于此，韩国方面应该努力做中美两国关系的润滑剂，避免直接的选边站队、刺激中国的行为。而在朝核问题上，两国应该就朝鲜半岛无核化等问题达成长期共识，在对朝工作上保持沟通与合作。另外，长期来看中韩作为近邻，应该着手在能源与粮食两个领域的合作，在本世纪20年代，未雨绸缪，及早布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의 시각

为了中韩关系的改善，应该做什么？

---韩国视角

마상윤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카톨릭대학교 교수

马相润

前外交部政策规划局长，天主教大学教授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의 시각

마상윤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카톨릭대학교 교수)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2. 한중경제협력 패러다임 변화
3.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신남방전략의 차원에서 경제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 차원의 군사협력이나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한 그룹에는 가입과 관련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 경제협력국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현.
-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에의 참여 압력이 있었고, 특히 한국의 Quad 참여문제가 2021년 3월 이후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이렇다 할 결정이나 행동을 취한 바 없음.
- 한미정상회담(5.21) 결과문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면서 한중 당국 간 미묘한 기류 형성. 직후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

§ 한반도 문제 해결은 한국 대외정책에서 최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최대 이유가 되고 있음.

- 현재 한국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 중. 종전선언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수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9.21)에서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제안.
- 한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3자 또는 4자 회담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
-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

§ 중국은 미중경쟁 심화 추세 속에서 북한을 최대한 꺼안는 것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핵화를 없이 생존 유지 도모 가능성 높음.
-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함께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했고, 또한 최근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단되었던 북중교역의 재개 준비 동향도 나타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경제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접근에 대한 한·미·중 간 합의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한중경제협력 패러다임 변화

§ 기존의 한중 무역 관계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과 원자재 및 소비재 수입을 위주로 구성되었음.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중국의 거대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그러나 더이상 기존의 경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졌음.

-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노동 임금이 크게 올랐고, 수입대체가 가능한 분야에서의 중국업체 우선 정책으로 한국 업체의 경쟁력 약화
- 중국은 산업고도화 추구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의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희망.
- 미중경쟁이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를 적극 추진 중.
- 최근 ‘요소수 대란’ 등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부품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한국 경제에 파장이 미치는 사태 발생.

§ 한중경제협력의 패턴과 내용을 대폭 바꿀 필요 있음.

- ESG 관련 기술 협력 등 협력의 고도화 필요
-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협력 필요.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한국은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첩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

3.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 한국의 대중국 여론/인식 악화 추세

- 최근 퓨리서치 여론조사결과(2021. 6. 30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중국 비호감도

는 77%로 17개 조사대상국 중 일본(88%), 호주(80%), 미국(78%)에 이어 세계 4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청년층의 대중국 인식이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2021. 6. 25~27일 실시)에서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 국가에 대한 감정을 0~100도(높을수록 긍정적)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미국(56.3도)-북한(29.5도)-중국(27.5도)-일본(26.7도) 순으로 호감도가 나타났음. 그러나 세대별 응답을 들여다보면 20대는 미국(56.1도)-일본(30.8도)-북한(25.3도)-중국(17.1도), 30대는 미국(55.6도)-북한(25.3도)-일본(23.9도)-중국(20.3도)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청년층의 대중 인식 악화는, 젊은 세대가 미세먼지, 감염병, 사이버범죄 같은 신형안보 이슈에 기성세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최근 김치, 한복 종주국 논란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젊은이들 사이에 불붙은 온라인상의 감정싸움도 청년층의 중국 혐오를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음. 중국의 애국주의 고양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청년층에게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한국 청년층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중관계의 미래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중국 사회의 다면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외교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화 현상은 중국 사회의 다양성과 다면성을 부각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 특히 중국에서의 애국주의의 고양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대중여론을 자극할 것임.

为了中韩关系的改善，应该做什么？

——韩国视角

马相润

（前外交部政策规划局长，天主教大学教授）

一、中国在解决朝核问题中的积极作用

二、韩中经济合作的模式转变

三、为促进相互了解的努力

一、中国在解决朝核问题中的积极作用

- 韩国正在积极寻求与美国主导的印太战略相关的“新南方战略”的经济合作，但对于超越韩半岛领域之外，加入一个在地区层面具有军事性质或制衡中国性质的集团，韩国保持谨慎立场。

- 韩国当局始终坚持“美国是韩国唯一的盟友，中国是韩国最大的经济伙伴”的立场。

- 作为美国的盟友，韩国在参与以美国为首的印太地区联盟方面面临压力，特别是韩国四方安全对话的参与问题在 2021 年 3 月之后成为关键内容，对此，韩国尚未做出任何表态或行动。

- 5月21日，韩美首脑会谈中签署的文件里有与台湾海峡和平与稳定相关的内容，由此在韩国和中国当局之间形成了一种微妙的气氛。此后不久，韩国政府表明立场，尊重一个中国的基本原则。

- 解决半岛问题是韩国外交政策的首要任务和紧迫任务，韩国期待中国在这方面可以发挥积极作用，这是韩国政府高度重视对华关系的最大原因。

- 韩国政府为重启韩半岛的和平进程正积极推进终战宣言。终战宣言是与朝鲜进行对话的一种手段，文在寅总统9月21日在联合国大会的演讲中提议通过三方（韩国，朝鲜，美国）或四方（韩国，朝鲜，美国和中国）会谈推进终战宣言。

- 韩国政府有意将2022年北京冬奥会作为三方或四方会谈的重要契机，期待中方在此发挥积极作用。

- 然而，也有观点认为，韩国政府过于专注恢复与朝鲜的对话从而正在失去在美国和中国之间的平衡。

- 随着中美之间的竞争日益激烈，中国认为与朝鲜保持亲密关系在战略上有利于与美国的竞争。

- 然而，在这种情况下，朝鲜极有可能充分利用中国的支持，在不放弃核武器发展的条件下谋求生存。
- 中国和俄罗斯已经在联合国安理会上提议放松对朝鲜的制裁，受新冠疫情影响中国对朝贸易一直处于暂停状态，最近出现重启和恢复的趋势。
- 对朝鲜的放松制裁或经济援助都应在国际社会的协助下进行，为此，韩国、美国和中国应提前就朝鲜问题达成协议。

二、韩中经济合作的模式转变

- 韩国和中国现有的贸易关系主要由韩国向中国出口中间产品以及从中国进口原材料和消费品组成。此外，韩国对华投资主要是看中中国廉价的劳动力或想进军中国巨大的市场。
- 但维持现有的经济关系变得愈加困难。
- 随着中国经济的发展，劳动力成本大幅上涨，由于中国企业在可替代进口领域享有优先政策韩国企业的竞争力被削弱。
- 中国希望随着产业的不断升级，韩国企业能在半导体等尖端领域进行投资与合作。
- 美中竞争已扩展到经济和科技领域，美国正在积极寻求脱离中国供应链的方法。
- 如“尿素危机”等事件，最近由于来自中国的原材料和零部件供应中断，对韩国经济产生了不小的影响。
- 有必要大幅改变韩中经济合作的模式和内容。
- 升级ESG相关技术合作
- 为加强供应链稳定性，需要经济方面的合作。今后，如果中方不能确保稳定供应，韩方将会努力减少在供应链方面对中国的依赖。

三、为促进相互了解的努力工作

- 韩国对中国的舆论和认识有恶化趋势
- 皮尤研究中心2021年6月30日公布的舆论调查结果显示，77%的韩国受访者对中国持负面评价，在17个调查国家中中国排名第四，其中韩国人最不喜欢的国家是日本（88%），其次为澳大利亚（80%），然后是美国（78%）。
- 特别是年轻人对中国的印象越来越差。
- 据韩国日报和韩国调查（Hankook Research）的一项民意调查显示，在“请用 0-100 的数字表达您对朝鲜、中国、日本和美国四个国家的喜爱程度（数字越大越喜欢）”的问题中，韩

国人给出的结果依次为美国（56.3度）、朝鲜（29.5度）、中国（27.5度）、日本（26.7度）。然而，如果我们看不同年纪人的回答，20多岁的人对四个国家的喜爱程度依次为是美国（56.1度）、日本（30.8度）、朝鲜（25.3度）、中国（17.1度），30多岁的人是美国（55.6度）、朝鲜（25.3度）、日本（23.9度）、中国（20.3度）。这结果表明年轻人对中国的好感度最低。

- 分析认为年轻一代对可吸入颗粒物、传染病、网络犯罪等新兴安保问题的反应比老一辈更敏感，而新冠病毒的爆发成为决定性原因。
- 此外，近期因泡菜、韩服起源等问题两国年轻人在网上出现互相憎恶的现象，加剧了韩国年轻人对中国的厌恶。中国爱国主义的高涨对于更注重个人主义的韩国年轻人来说将引起负面影响。
- 韩国年轻人对中国的这些负面看法将对韩中关系的未来产生巨大的负面影响。
- 需要通过公共外交来提高韩国人对中国社会多方面的理解。
- 然而，中国目前的权力集中很可能成为展现中国社会多样性和多面性的重大阻碍。
- 尤其是中国爱国主义的兴起以及试图将其利用到政治上的企图，将激起韩国对华的负面舆论

종합토론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사무처장)

미중관계는 이미 국제사회의 중요한 상수가 되어있다. 이는 미국정부나 미국인 중국정부나 중국인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부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가 협력에서 마찰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중 마찰과 대립 내용은 군사, 안보, 과학기술, 경제, 금융, 화폐, 자원, 교육, 가치관, 사이버, 우주 등 모든 영역의 마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제정치 지역적 영역으로 보자면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던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양국의 대립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지역의 일본이라는 국가영토와 일중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미중간 경쟁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동북아 한반도주변의 진영간 대립에서도 미중의 대외관계와 정책은 서로 대립과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서구세력과 중국의 새로운 영향력은 결국 중국의 우세로 확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패권을 문제에서도 기존 미국의 영향력에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많이 확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이슈이자 중국인들의 대립이라 할 수 있는 양안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기존 타이완과의 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며 현재 이를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진영논리와 동시에 각국의 지역패권 및 영향력을 위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1992년 수교한 한국과도 관계를 강화하며 해양과 사회 및 경제에서 회색지대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시작이 되었던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한미관계는 한국사회와 국가정체에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기에 동북아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속에서도 꾸준하게 미중 대립이 상존하는 분단된 중국과 연결된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미국,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일본 등의 이권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한미동맹과 중국의 한국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저울의 양측과 같은 모습으로 꾸준하게 서로간 대립과 마찰로 이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문화적 관계 외에도 진영간 이데올로

기, 경제, 문화, 사회의 문제외에도 서로 이제는 다시 떨어질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즉, 양자간 관계는 서로 밀월시대를 넘어 경쟁과 마찰의 시대를 넘어 서로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즉, 열애로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은 초기의 부부관계를 넘어 서로의 미래를 걱정하며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서로에게 해를 입히거나 이혼의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 서로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가 상존하는 한중관계는 과거와 다른 서로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기초로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며 양국관계의 현안을 국제관계의 틀에서 봐야하는 양국 정치인과 지성인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양국 국민들의 적절한 상호교류를 통한 기존 교류의 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문제는 한반도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함께 보이게 하며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슈로 보인다. 동북아국제관계에서 미중, 한중,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중요한 상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관계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협력해야 하는 소통의 핫라인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综合讨论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事务总长)

中美关系在国际社会中越来越重要。可以说这是中美两国的政府和国民以及世界各国政府和全球人都关心的国际问题。随着中美关系开始由合作转向摩擦，两国之间的冲突和对立正在向军事、安全、科技、经济、金融、货币、资源、教育、价值观、网络和宇宙等各个领域发展。另外，从国际政治地区角度来看，美国在一些地区一直保有较强的影响力，然而随着中国在这些地区的影响力逐步扩大，两国的对立愈加强烈。尤其是在中日摩擦不断的争议地区以及日本在西太平洋地区的领土问题上，中美之间的竞争正在不断加剧。在东北亚韩半岛周边阵营之间的对立中，中美的对外关系和政策也一直处于对立和竞争的状态。香港和澳门回归中国，此前在这些地区的西方势力逐渐变弱，中国拥有了新的影响力最终成为中国优势。此外，在中国关注的南海海上霸权问题上，中国通过灰色地带战略扩大本国影响力来对抗美国现有的影响力。甚至在可以称得上是让中国人对立的两岸问题同时也是个国际问题上，美国也没有放弃与台湾现有的合作，目前正将其视为美国遏制中国战略的一环。

关于韩半岛问题，美国和中国在南北韩对抗的情况下，维护彼此阵营逻辑的同时，为守护地区霸权地位和影响力一直保持对外关系。1992年中韩建交，中国强化两国关系并在海洋、社会和经济领域中扩大灰色地带战略。韩美同盟关系始于朝鲜战争，是韩国社会和国家政体的重要基础。对于美国来说位于东北亚的韩半岛是在中美对立中连接中国（台湾与大陆）的重要门户。除了美国和中国，韩半岛还与俄罗斯和日本有着千丝万缕的联系，中国十分关注美国在韩半岛的影响力，这与韩美同盟会发生冲突与摩擦。

考虑到这些，韩中关系在历史文化、阵营意识形态、经济、文化和社会问题方面有着不可分割的联系。换言之，两国关系发展已经越过了之前的蜜月时代、竞争与摩擦时代，现在已经发展进入了需要相互管理的阶段。也就是说，现在那种恋爱结婚生子的初期夫妻关系阶段已经过去了，进入到了担心彼此的未来的阶段，从家庭的概念出发，为了不朝着互相伤害或离婚方向发展，进入了相互管理的阶段。中韩关系现在仍存在危机，所以要以与过去不同的科学管理方式为基础，防止两国关系进一步恶化。要解决这些问题，需要正视现实，基于两国政治家和知识分子的理性判断，在国际关系框架下看待当前双边关系问题，还要通过两国国民适当的沟通保持现有的交流框架。朝鲜问题也很重要，可以让韩国、朝鲜、美国、中国、日本和俄罗斯表面上保持整体和谐实际相互制衡。不可否认，在东北亚国际关系中中美、中韩关系很重要，朝鲜同样占具重要地位。从这个意义上说，中韩关系应该考虑各种情况，保持加强合作的积极沟通。

회의 참여 명단

한국측 (가나다 순)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사무처장

Kim Jin-ho, Prof. of Dankuk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외교부 외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청와대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Kim Heung-kyu, Director of the US-China Policy Institute at Ajou University,

Chairperson of the Reform Commission at MOFA, Policy Advisor at the NSC

노재현,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Ro JaeHun, Standing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마상윤, 전 외교부정책기획관, 카톨릭대학교 교수

Ma Sang-Yoon, Professor at Catholic University, Former General Director of the Bureau of the Policy Planning at MOFA

문희상,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Moon HeeSang, Honorary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부형욱,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Boo Hyoung-wook, Senior Researcher at the KIDA, Former Administrative Secretary at the NSC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Lee Sang-hyun, President of Sejong Institute

이왕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 Wang-hwi, Professor at Ajou University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 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Lee Chang-hyung, Institute for Continental Asia Stratgty, Honorary Researcher at the KIDA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Yang Hee-chul,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Director at the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및 전 외교안보연구소 대리소장

Jun Bong-geun, Professor at the Korean National Diplomacy Academy

천진환, 김구기금회 부이사장

Chun Jin-hwan, Vice Chairman of Kim Koo Foundation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Hong Hyun-ik, Chancellor of the Korean National Diplomacy Academy

중국측 (가나다 순)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Ning Fukui, Former Chinese Ambassador to ROK

리춘푸, 남개대학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Li Chunfu, Vic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 Studies at Nankai University

왕 동, 북경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부주임 및 국제관계학원 교수

Wang Do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at
Peking University

왕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및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Wang Junsheng, Research Fellow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NIIS CASS)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및 아태연구원 부원장

Zhang Xiaomi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Deputy Dean of Asia-Pacific Institute, Peking University

장원링, 산둥대학교 석좌교수 및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Zhang Yunling, Chair Professor and D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장징첸, 산둥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 및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Zhang Jingquan, Deputy Dean of th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Deputy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자칭궈, 북경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및 교수, 전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장

Jia Qingguo,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at
Peking University, Former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정지용, 상해복단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Zheng Jiyo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주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Zhu Feng,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Nanjing University; Vice Chairman of the China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tudies

파오동원,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및 국제정치학과 교수

Piao Dongxun,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tics;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Yanbian University

参会名单

韩方（按字母顺序排序）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高级研究员，前青瓦台国家安全室行政官

Boo Hyoung-wook, Senior Researcher at the KIDA, Former Administrative Secretary at the NSC

洪铉翼 韩国国立外交院长

Hong Hyun-ik, Chancellor of the Korean National Diplomacy Academy

田奉根 韩国国立外交院教授，前外交安保研究所执行所长

Jun Bong-geun, Professor at the Korean National Diplomacy Academy

金兴圭 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外交部外部改革委员会委员长，青瓦台国家安保室政策顾问

Kim Heung-kyu, Director of the US-China Policy Institute at Ajou University,

Chairperson of the Reform Commission at MOFA, and Policy Advisor at the NSC.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事务总长

Kim Jin-ho, Prof. of Dankuk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Lee Sang-hyun, President of Sejong Institute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Lee Wang-hwi, Professor at Ajou University

李昌衡，大陆战略研究所所长，韩国国防研究院名誉研究委员

Lee Chang-hyung, Institute for Continental Asia Stratgty, Honorary Researcher at the KIDA

文喜相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名誉委员长

Moon HeeSang, Honorary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马相润 前外交部政策规划局长，天主教大学教授

Ma Sang-Yoon, Professor at Catholic University, Former General Director of the Bureau of the Policy Planning at MOFA

卢载宪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常任委员长

Ro JaeHun, Standing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梁熙喆 韩国海洋科技院海洋法与政策研究所所长

Yang Hee-chul,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Director at the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千辰焕 金九基金会副理事长

Chun Jin-hwan, Vice Chairman of Kim Koo Foundation

中方（按字母顺序排序）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

Li Chunfu, Vic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 Studies at Nankai University

宁赋魁 前驻韩中国大使

Ning Fukui, Former Chinese Ambassador to ROK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Jia Qingguo,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at Peking University; Former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Piao Dongxun,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tics;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Yanbian University

王 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Wang Do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at Peking University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Wang Junsheng, Research Fellow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NIIS CASS)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Zhu Feng,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Nanjing University; Vice Chairman of the China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tudies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Zhang Jingquan, Deputy Dean of th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Deputy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Zheng Jiyo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张小明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北京大学亚太研究院副院长

Zhang Xiaomi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Deputy Dean of Asia-Pacific Institute, Peking University

张蕴岭 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Zhang Yunling, Chair Professor and D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